

농산물 시장 개방과 유통 구조의 개선

李 載 玉*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직도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쌀을 포함하여 주요 농산물 모두를 예외없이 개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 농업이 비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어려운 것 만은 아니고, 그동안의 공업 위주 경제 성장 정책과 농업 투자의 미흡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장기간에 걸쳐 농업의 성장 기반 조성에 힘써 온 까닭에 농산물 협상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은 비교 우위나 국제 경쟁력이 없으면 미련없이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산업이 아니다. 공산품은 가격이 비싸면 적게 소비하고 아예 안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쌀과 같이 매일 먹어야 할 기초 식량의 경우 전적으로 해외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수출국의 가격 조작과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은 최근에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아울러 농업은 환경 보전 기능,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잘 가꾸어진 논·밭은 토양 유실의 방지, 대기 정화, 그리고 홍수 조절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에 쉼은 도시인들에게는 공원으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업과 농촌이 붕괴되었을 경우, 수 많은 이탈농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공해, 주택, 교통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인바, 농업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보전시키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농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함은 물론 전면적인 수입 개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새삼스런 마음으로 모색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전면적인 수입 개방을 극복하는 길은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인 수요를 하게 하는 길 밖에는 없다. 따라서 생산비를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 농산물보다 품질이 훨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비가 비싼 첫째 이유는 영농 규모가 영세하고 인건비

*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무역실장,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무역 전공

가 비싼 데 원인이 있으므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농업의 기계화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아무리 규모를 확대시킨다 해도 국토가 광활한 농산물 수출 국가들과는 경쟁할 수 없으므로 생산비 인하와 동시에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단계는 도매 또는 소매 단계이므로 생산비 인하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유통 체계의 개선과 유통 비용의 절감이다. 가령 밭에서는 포기당 100 원씩 팔리는 배추가 소비자 구입 단계에서는 1,500 원씩 거래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생산비를 인하해도 소용이 없고, 수입 개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질 고급화와 가격 차별화 전략 역시 유통 구조의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힘들여 생산한 한우나 유기 농산물이 여타 국내산 또는 수입산과 혼합, 혹은 둔갑하여 팔리는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농산물 유통 체계의 개선이 개방화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유통 체계의 문제점들과 관련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이전보다 더욱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가격 지지가 가격 안정화 시책이 크게 규제받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 즉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생산과 출하 물량을 조정하여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시장 유통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반면 정부는 도매 시장 건설, 농산물 표준 출하 규격 등 시장·유통의 하부 구조를 구축하고 유통 조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주산단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수급 및 자격이 불안정하여 정부의 가격 안정화 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과, 배, 감귤, 양파, 양돈 등을 중심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자 조직의 성격, 경영 여건, 수행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존의 농협, 축협 등의 일선 조합 및 이들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농협 후계자 조직 등 기존의 생산자 조직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산자 조직은 품목별로 자율적인 생산·출하 조정 및 시장 교섭, 저장·가공·판매·수출 등 유통 사업을 시행하여 농업 관련 부가가치를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정부는 생산·출하 조절 자금 지원외에도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품목별 자조금 제도의 시행을 도와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선별, 포장, 저장 등 산지 유통 시설을 시급히 확대하되 이들 시설의 운명은 생산자 단체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 특히 청과물의 경우에는 선별기 도입과 예방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미국 종합 처리장 건설 계획은 공장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운영은 역시 농협을 포함한 생산자 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공영 도매 시장의 확충으로 대량·신속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시급하다. 도매 시장의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민간 대기업의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다. 이득을 보게 될 제조업 수출 분야에서 농업에 도움을 주겠다면 공업 도매 시장의 건설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울러 도매 단계에서의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도매 시장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새로이 건설되는 도매 시장에서는 지점 도매 법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따른 기능 조정을 위해 경매 기능은 관리 공사가 담당하며 대금 결제 기능은 별도로 정산 회사를 설립, 담당케 함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현재 거래 물량에 비해 과다한 중매인 수를 감축시키기 위해 중매인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통 비용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매 단계에서의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을 취급하는 소매 점포에 대한 저리 융자 확대, 임대 기간의 장기화, 점포의 실비 분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편의점 등 유통 시장의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매 점포의 대규모화와 전문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소비자 유통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생산자 조직의 직거래 활성화이다. 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직판 시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판장의 대부분의 규모가 영세하고 적자 상태에 있으므로 직거래 운영 주체의 광역화와 직판장의 대규모

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기 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국내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의 소득원 증진을 위해 농촌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생산자 단체는 주로 단순 가공 또는 1차 가공 분야에 참여하고 민간 기업을 고차 가공에 참여함으로써 계열화 관계를 형성토록 하며, 특히 민간 기업은 가공품의 해외 수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자 단체의 가공 산업 참여는 주로 우리의 전통 식품을 위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한과, 막걸리, 호박죽 등 전통 가공 식품의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의 전략 상품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제2 녹색 시대” 행사 추진 등 생산자 중심의 홍보 및 판촉 활동과 더불어 국제 식품 박람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국내 유통의 또 하나의 과제는 우리 농산물이 해외 수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내는 일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세계의 농산물 시장은 예외없이 개방되었으며, 향후 농산물 교역 질서는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 분업의 체제가 정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농산물의 경쟁력이 낮은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기후와 풍토하에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다. 수입할 것은 수입하되 수출이 가능한 농산물은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품목별 수출

전문 단지를 조정하여 해외 소비자가 수요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국내 수요와 상관없이 생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단지내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 조합을 육성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때 민간 수출 업체에만 지원하는 농안 기금을 수출 조합에도 지원하고, 생산자와 수출업체 분담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수출 결손 보상, 유통 현대화, 기술 교육 등에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해외 시장의 개척과 홍보, 정보 수집 등이다. 따라서 수출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시장 개척 자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장 개척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 종합상사나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농산물 수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공산품에 대한 수출 지원 제도를 농산물 수출 분야에도 적극 활용하여 무역 금융 및 어음, 수출 신용 보증 해외 시장 개척 기금 등이 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 도·소매 단계의 유통, 가공, 수출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행태이다. 최종적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 결정은 소비자가 내리게 된다. 농산물까지도 외제가 좋다는 외제 선호 사상에 젖어 무조건 수입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외국 농산물의 경우 과다한 농약 살포, 항생제 및 성장 호르몬 잔류에 대한 논쟁

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상업적으로만 생산, 수출하는 수출국 농민들의 이윤 추구 행태 때문이다. 따라서 제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몸에 제일 좋다는 身土不二라는 말을 명심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같은 값이라면 국내 농산물을 애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거래 교섭력을 강화하고 도·농간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생활 협동 조합이라는 소비자 단체를 발족시켜 소비자 이익 증대는 물론 우리 농산물 지키기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 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에는 우리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겠다. ♣